

KIA 고참 3인방 "V10은 우리에게 맡겨라"



(이 중범)



(심재학)



(조경환)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 금빛소식

양신영 4관왕 이정수 3관왕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주자 양신영(17·분당고)이 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을 올랐고, 남자부의 이정수(18·광문고)도 3관왕을 차지했다.

의 영광을 차지한 뒤 2,000m 계주 결승에도 나서 1위를 차지하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 특히 여자대표팀은 박승희가 계주 금메달을 비롯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고, 전날 500m 금메달을 차지했던 신새봄은 이날 계주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등 여자부 전종목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후배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뛰겠다"

'V10은 고참들에게 맡겨라!' KIA 타이거즈 '고참 3인방'이 한겨울 칼바람을 무색케 하는 맹훈련으로 동계훈련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동계훈련이 한창인 광주구장은 이종범(37), 심재학(35), 조경환(35) 등 고참급 선수들이 내뿜은 훈련열기로 가득하다.

자율훈련 기간 중 체력 강화 주력 "팀 우승위해 솔선수범" 당찬 각오

나와 배팅·수비훈련, 웨이트 등 다양한 훈련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후배들에게도 훈련방식을 조언해 주는 등 팀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종범과 함께 올해로 FA계약이 종료되는 심재학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심재학은 프로데뷔 후 처음으로 비훈련기간동안 개인 훈련을 갖는 가 하면 팀 훈련이 한창인 요즘엔 선·후배들과 어울려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시작한 그는 2006시즌이 끝난 직후부터 남해전지훈련, 일본 미야자키 합동훈련 등 모든 팀 훈련에 합류, 풀 시즌에 대비한 체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조경환은 "젊은 선수들에 비해 체력적인 부분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훈련 밖에 없다"면서 "올 시즌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남은 훈련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마지막 야구인생을 멋지게 꽃피우고 싶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

프로야구 현대 농협, 인수 추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를 검토중인 농협중앙회가 한국야구위원회에 연고지 서울 이전과 전면드래프트를 실시를 요구해 구단 인수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농협은 15일 오후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현대 유니콘스 인수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뒤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연고지를 수원에서 서울로 옮겨 줄 것과 전면드래프트 실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세 후지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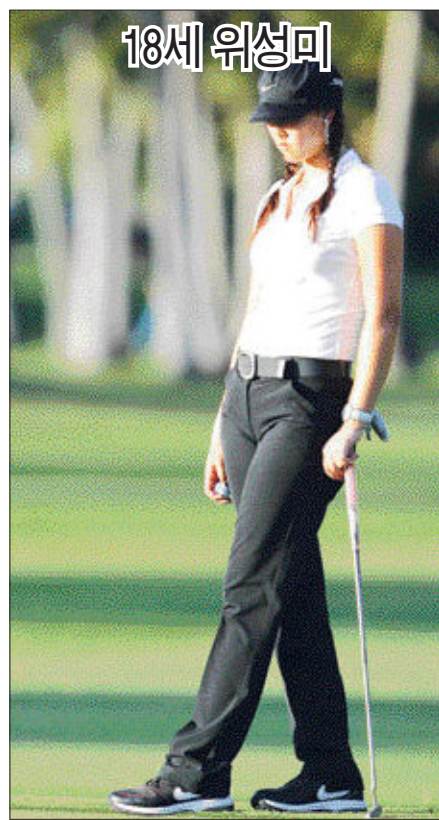
위성미(18·나이키골프)와 태드 후지카와(16). 같은 하와이 태생의 남녀 '골프 천재'들이지만 15일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세계 여자 골퍼 최고 수준인 2천만달러의 돈을 벌어들이는 위성미는 4년째 이 대회에 출전한 이래 최악의 성적으로 예선에서 탈락했고, 신장 155cm의 '무명의 신동' 후지카와는 공동 20위에 올라 세계 골프계에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니오픈 10대들의 명암

공통 20위 웃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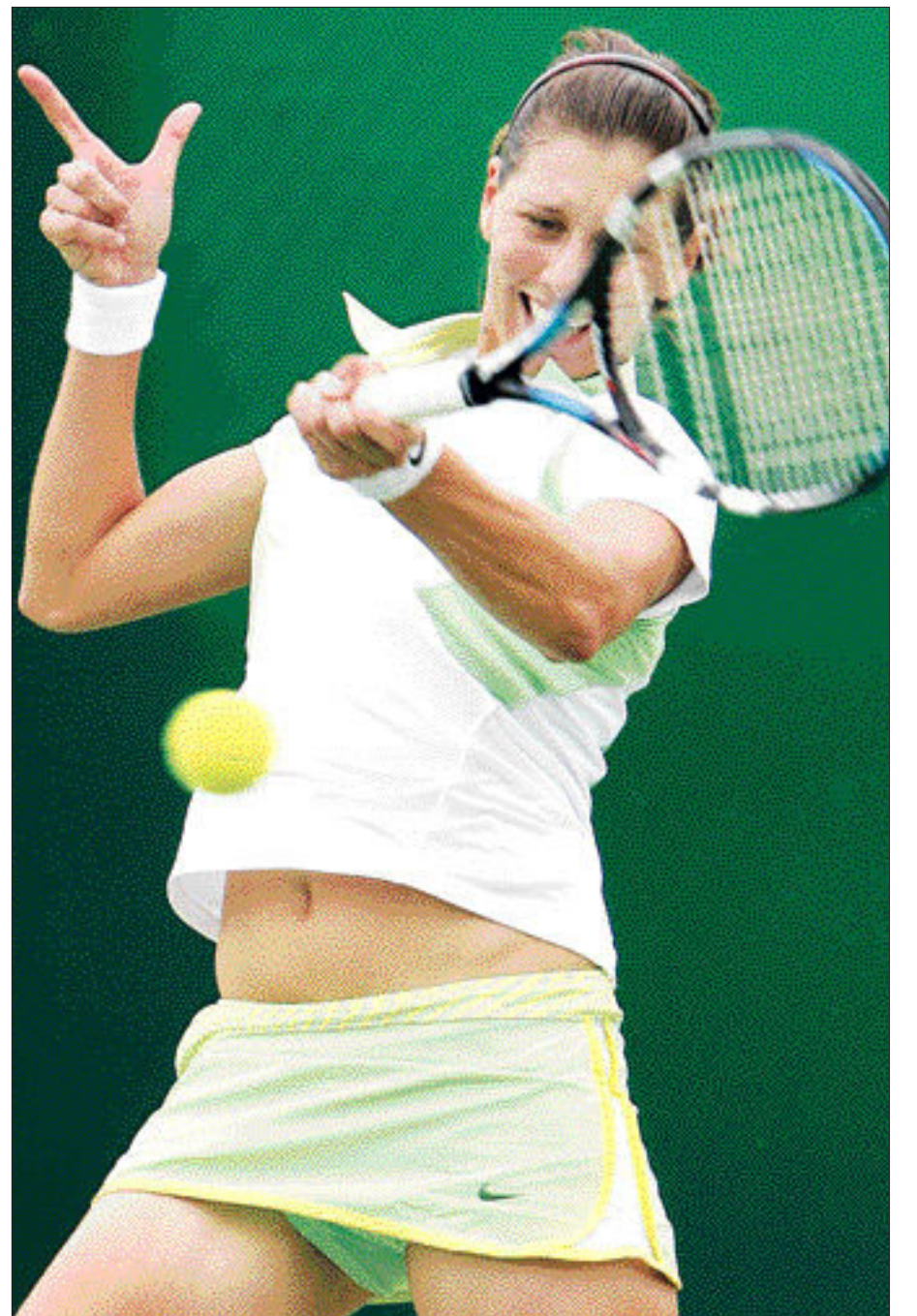
컷 탈락 울고

하지만 여자라는 점, 그리고 185cm에 이르는 큰 키와 소독 수준, 세계 골프계 인지도 등은 뚜렷하게 위성미가 앞서 있다. 위성미가 대회 1라운드에서 이미 탈락이 예상되는 저조한 성적을 내자 언론은 후지카와가 PGA 투어대회 사상 두 번째로 나이 어린 컷 통과자가 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하와이 모아나투아고교에 다니는 아마추어 후지카와는 2라운드까지 3언더파 137타, 공동 25위의 성적으로 컷을 통과했고, 위성미는 예상대로 골퍼에 가까운 성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18세 위성미

심지어 외신의 한 기사는 위성미에게 후지카와를 이ട는 질문을 하기까지 했다. 위성미는 이에 대해 "한 번도 같이 쳐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면서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고 평가를 내려줘야 했다. 위성미는 소니오픈에 4년째 스폰서 초청을 받아 출전했으나 후지카와는 지역 예선을 통해 어렵사리 등단한 무대였다. 후지카와가 칠삭둥이로 태어난 미숙아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수술에 수술을 거듭한 끝에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지막 갤러리의 격려는 더욱 대단했다.



화끈한 리시브 아르헨티나의 클리사 페르난데스가 15일(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07호주오픈테니스 여자 단식 1라운드에서 주자나 몬드라스코바(체코)의 공을 받아 넘기고 있다.

최경주 4위...2주 연속 톱 10

PGA 소니오픈 최종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의 초반 상승세가 예상외로 뜨겁다. 최경주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골프장(파70·7천6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쳤다. 4라운드 함께 9언더파 271타로 대회를 마무리한 최경주는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쳐 개막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10'에 입상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최경주는 9번홀까지 1타도 줄이지 못해 상위권 입상이 어려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10번홀(파4)에서 이날 첫 버디를 뽑아내 분위기를 바꾼 최경주는 14번홀(파4)과 17번홀(파3)에서 버디를 보태 순위표 상단까지 치고 올라왔다.